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100일 앞으로

30개국 800여 디자이너·기업 온다

제2회 광주디자인 비엔날레(10월5~11월3일)가 27일로 개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올 행사에는 30여개국 800여 디자이너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빛(L.I.G.H.T)'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 새로 도입한 국제디자인 지명공모제와 기존 '디자인 명예의 전당'의 성격을 변경한 '20세기 디자인 발자취'전의 참여작가를 선정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2007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 100일을 앞두고 본전시와 특별전 등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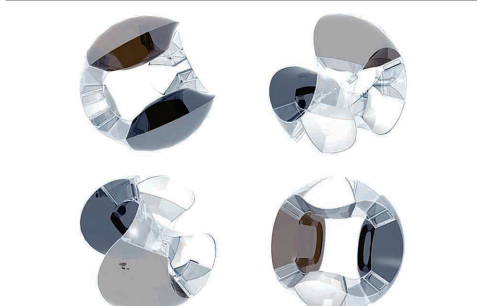
▲본 전시=빛의 영문 이니셜인 'L.I.G.H.T' 5개 글자를 중심으로 5개 부문으로 구성되는 본전시는 모두 53개 코너로 구성되며 현재 28개 코너의 전시구성이 완료됐다.

디자인의 가치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지는 본전의 전시 공간실험 계획은 이미 확정돼 오는 9월경 본격적인 공간 설치작업을 앞두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이를 위해 용역실업체인 alt-C사와 계약을 맺고 전시공간 설치에 작업을 조율하고 있다.

재단은 이번 행사에 30여개국 800여 디자이너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내외에서 홍보와 섭외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별전=제1회 때 유명디자이너의 작품을 조명했던 '디자인 명예의 전당'전과 달리 20세기

참여작가 선정 등 마무리 단계 평화선언 상징 조형물 건립도



2007디자인 비엔날레 참여 작가인 드로우(네덜란드)의 '슬로우 드로우'(위)와 비토 아콘치(미국)의 'coffee & tea set'.

디자인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세기 디자인 발자취'전도 손조롭게 준비되고 있다.

이 전시는 20세기를 10년 단위로 나눠 세계 디자인계에 족적을 남긴 유명디자이너나 디자인 회사의 작품 100여점을 선보이는 전시로, 현재 30% 가량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특별전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잉고 마우러(독일)전은 작가와 작품 전시를 위한 협약을 마쳤다. '살아있는 빛의 신화'로 불리는 잉고 마우러는 특별전에서 빛과 조명장치를 활용한 대표작 25점을 선보인다.

또 광주의 디자인 원형을 찾는 '광주의 디자인 자산 100선', '광주의 공공디자인'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부대행사=세계의 유명 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국제 지명공모제인 '미래의 디자이너'전 참여작가 선정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재단은 참여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전 세계 디자인 관련 단체 등을 미래 디자이너 추천 위원으로 위촉, 작가와 작품을 추천 받고 있다. 전시에는 최종 선발된 100명(작가·디자인업체)의 작품이 선보인다.

디자인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겨질 '세계 디자인 평화선언'의 초안 작업도 마무리 단계다. 재단은 '선언문 문안작성 자문위원회'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독할 세계 디자인 평화선언의 마지막 문구를 손질하고 있다.

세계디자인 평화선언문 상징 조형물 디자인을 맡은 잉고 마우러는 이미 작품 설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귀한' 그림 장마철에 제대로 보관하려면

습기 조심... 뽁뽁송뽁뽁하게

얼룩·곰팡이 등 이상징후 발생하면 말려줘야

장마철에는 눅눅한 습기 때문에 그림에 곰팡이가 스는 등 작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잦다. 값비싼 미술품의 경우 세심한 손질이 미치지 않을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미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장마철 미술작품 보관 및 취급법을 소개한다.

▲미술품 보관에 적합한 환경은 =유화나 종이작품은 20℃의 온도와 습도 50%±5%가 최적의 조건이다. 실내온도를 20℃로 유지시키기 어렵다면 온도가 3~4℃정도 높은 것은 문제없으나 습도는 최대한 낮춰야 한다.

특히 습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킬 경우만 의미가 있다. 낮에는 20%이고, 밤에는 80% 여서 하루 평균

50% 라는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림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특히 유화는 습도에 따라 수축이완을 반복하므로 습도가 급격하게 변하면 화면이 갈라지거나 떨어져내릴 수 있다.

또 습도가 70% 이상 되면 종이에 그린 동양화나 서예 등에 곰팡이가 피는 원인이 된다.

▲보관 참고에 소장중인 작품 =그림 보관창고에 작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병풍이나 액자 등 종이류와 유화 등의 작품은 통풍이 잘 되도록 서로 간격을 벌려 놓는다.

패창한 날씨에는 햇빛에 내놓고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에어컨을 이용하면 비용은 비싸지만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습기를 제거해줄 수 있다.

제습기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보관창고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 보관창고에는 온습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병풍이나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 =벽지가 눅눅한 지 수시로 점검해야하며 습기가 느껴지면 곧바로 작품을 떼어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둔다. 액자가 있는 작품은 특히 자주 살펴봐야 한다.

일록이 생기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떼어내 선풍기 등으로 말려주거나 액자를 제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곰팡이 방지에 도움이 된다. 에어컨이 없으면 회전 기능이 있는 선풍기를 이용해 약하게 공기를 순환시켜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소의 시설 찾아 사랑의 하모니

한소리회 27~29일까지 광주·장흥서 자선 음악회

지난 2000년 창단 이후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전해온 '한소리회'(총감독 박미애)가 27~29일까지 소의 시설을 찾아 사랑의 하모니를 전할 예정이다.

한소리회는 27일 나주 중부지역 아동센터와 광주 무등음악원을 시작으로, 28일(장흥 대덕지역 아동센터, 장흥지역 아동센터)과 29일(광주 천혜 경로원, 광주새우리병원) '2007 신나는 예술여행-사랑과 희망이 있는 음악회'를 진행한다.

한소리회는 특히 각 시설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 관객들의 호응도를 높일 계획.

아동센터와 육아원에서 '풍덩풍덩' 등 동요메들리, '포마 자동차 붐뽀' 등 만화영화 메들리를 들려주며 경로원에서는 '사의 찬미'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요와 '동심초' 등 가곡을 들려준다.

박미애씨가 해설을 맡으며 유형



민·이윤순·이지영·임영란·이현숙씨 등이 출연한다. 피아노 반주는 정희경씨, 문의 062-227-7442.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미국 공예와 조각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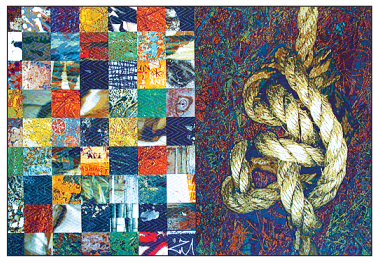
플라이트 오브 판타지展 7월 6~20일 서울대학교 미술관

미국 공예와 조각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 데 모은 전시회가 열린다.

주한미대사관이 주최하는 '플라이트 오브 판타지(Flight of Fantasy)'전이 다음달 6일부터 20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 전시에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아트 인 엠버시(Art in Embassies) 소속 공예작가인 주디스 제임스, 마이클 제임스, 브래드 스토리, 리사 버시바우 등 4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에서 킬트 작업의 대가인 마이클 제임스는 대표작 'Lover's-Knot'를 선보이고 버시바우 주한 미



마이클 제임스 작 'Lover's-Knot'

대사의 부인인 리사 버시바우는 'Post-modern Corsages'를 출품한다.

조각가 브래드 스토리는 새를 형상화한 모빌을, 주디스 제임스는 섬유 작품을 내놓았다. 문의 02-880-9504.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품展

한국화 등 29점~내달 25일까지 남구 종합문화회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준높은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 남구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가운데 한국화, 문헌화, 서양화, 조각, 공예품 등 총 29점을 대어, 다음달 25일까지 남구 종합문화회관에서 '열린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익명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영조의 '익명인'과 새를 바탕으로 삶의 공간을 조명한 왕형열씨의 '동행' 등 작품이 선보인다.

전영욱의 수액을 주제로 한 일선미씨의 칠화(漆畵)작품 '백합'과 윤길



왕형열 작 '동행'

현씨의 '흑염소-발산하다' 등 조각도 관람객들을 만난다. 문의 062-650-8151.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휴간된 '당대비평' 단행본으로 부활

2005년 불호를 끝으로 휴간된 인문사회계간지 '당대비평'(1997년 가을호 창간)이 부정기 단행본 '더 작은'을 상생한다(윤진지식하우스 펴냄·사친)를 출간했다.

당대비평 편집위원회는 '기획의 말'에서 "그동안 당대비평의 몇몇 위원들은 잡지의 복간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정기간행물로서 당대비평의 미래는 아직도 불확실하지만 단행본

의 형태로나마 결실을 보게 된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는 크게 1·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6월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진행 과정과 의미를 이야기했다.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와 최장집 교수가 '더 많은 혹은 더 작은 민주주의를 찾아서'를 주제로 대담을 갖고 87년 6월 이후 한국 사회와 문화를 성찰했다. /연합뉴스



민주화 이후 오늘날 한국사회를 진단한 제2부는 입지현한양대 사회학과 교수와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한국학 교수의 대담으로 시작한다. 이밖에 '87년 체제,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 선거(김호수·연세대)', '아직 끝나지 않은 노래-87년 헌법 개정 20년의 단상(김두식·경북대)' 등의 글이 실렸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영화야니' (Movie Night) featuring a collage of movie posters and the text '이제야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Advertisement for '메가박스' (Megabox) cinema listing movies like '검은집' and '오션스 13'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listing movies like '캐리비안의 해적' and '황진이'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s like '슈렉' and '리브&트러블'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무등극장' (Mudeung Theater) listing movies like '뜨거운 녀석들' and '두번째 사랑'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제일시네마' (Jeil Cinema) listing movies like '검은집' and '황진이' with showtimes and prices.